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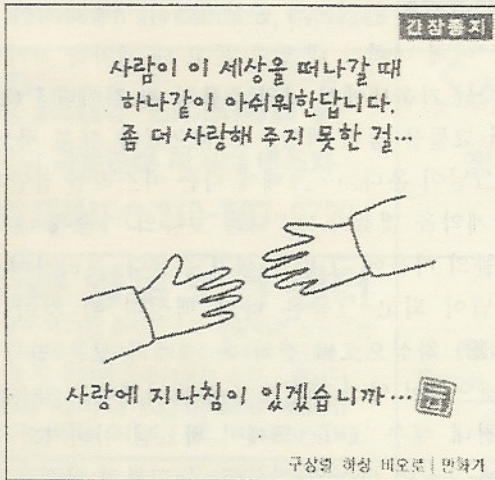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령 강림 대축일(성모성월)
제28권 24호(가해) 2008·5·11

[묵상]



이별을 앞두면 모두들 '결결' 거린다.
이래 볼 걸, 저래 볼 걸 ...
좀 더 잘 해볼 걸 ...
그렇게 하지 말 걸 ...
좀 더 챙겨주고 사랑해야 했을 걸 ...

이별이란 다른 만남을 기약하기에
아쉬움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지만
영영 이별한다면
그 아쉬움이 무슨 소용 있으랴?

우리의 구세주 주님은
이승에서 자신을 몽땅 주시고도
하늘에 오르신 뒤에 아버지와 함께
진리요 보호자이신 성령을 주시는구나.

오늘 성령강림 대축일에는
불허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은사로
우리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른다.(人)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불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중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매제기도모임 (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미사	(연)김종돈 스테파노, 고준희 제임스, 심재순 (생)고천용과 규재 체칠리아 가정
주일 낮미사	(연)김종돈 스테파노, 고준희 제임스, 이은환 야고보, 김베드로, 김마리아, 이현호 요한, 박순자 테레사, 이봉용, 정형두 바오로, 임병천 (생)고천용과 체칠리아 가정, 이종빈 요셉, 오화석 + 이마나헬레나, 이윤진 대건안드레아, 정 유스티노 + 야고보 + 율리아, 문영화 누갈다, 김아가비도 + 리나 가정, 배진영 + 수정 글라라 가정, 윤정숙 마리아 미카엘라, 요셉희 + 안나화원, 백삼위 마라톤 동호회, 마리아네 수녀, 박상대 신부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사도행전(Acts of the Apostles) 2,1-11
화답송	◎주님 당신 얼굴 보내시고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전례성가 74 성령 강림 대축일 참조>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크시고 크시어라 주저의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많고도 많건마는 온 땅에 당신 조물 가득 차 있나이다.◎ ○얼을 거두시면 그들은 숨겨버려, 드디어 티끌로 돌아가고 마나이다. 보내시는 당신 얼굴 그들은 창조되어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 기뻐하소서. 이 노래를 가까이 받아들이시면 주님 안에서 저는 즐거우리 이다.◎
제2독서	코린토1서(Corinthians) 12,31--7.12-13
부속가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 리라. 허물들은 씻어 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요한(John) 20,19-23
영성체송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차, 하느님의 위업을 말하였도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15	316
봉헌	361	220,264
성체	-	290,296
파견	166	-

12.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습니다(계속).

▶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불러 모으신 공동체, 곧 하느님의 백성이다. 하느님께서 “흠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시기 위하여”(요한 11,52)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계약을 맺으셨으며,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시어 계약을 맺으셨고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탈출 19,5) 하시면서 그들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다. 또한 하느님께서 “보라, 그날이 온다. ...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에레 31,31-33) 하심으로써 장차 온 세계의 모든 민족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시어 당신의 피로써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다. 이 새로운 계약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다.(1코린 1,2 참조)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오로 사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에페 1,23)고 말한다. 사람의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듯이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룬다.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요한 15,5 참조)로 설명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일치함으로써만 성장할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몸의 지체이므로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야 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1코린 12,12-27 참조)

▶ 교회는 성령의 성전이다.

교회는 온 대륙에 흠어져 있기에 풍부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기”(1코린 12,13) 때문에 항상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예배와 성사를 집전한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이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과 성령께서 맺어 주시는 평화의 끈으로 일치된 이룬다.(에페 4,3 참조) 성령께서는 온전히 교회의 머리에 들어 계시며, 온전히 그 몸에 들어 계시고, 또 온전히 각 지체들에 들어 계시어 교회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2코린 6,16)으로 만들어 주신다.

◆(계속 - CBCK 제공)

성령을 받아라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요한 20,19)라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스승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나타나시어 평화를 기원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순간 성령에 대해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갖는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자란 자신의 스승이 누구인지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 사명을 수행할 때 그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문을 꽂고 잠그고 방안에 있어서는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역할을 당당하게 행하도록 힘을 주는 이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모습을 오늘 제1독서는 잘 전해 줍니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하여 120명 가량의 그리스도 추종자들이 함께 모여 있던 자리에 오신 성령으로, 그들 모두는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하느님의 위업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들이 말한 언어가 어떤 것인지 전해 주면서, 성령을 가득히 받은 이들이 모든 민족의 언어로 주님을 찬미하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던 교회에서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 탈바꿈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에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잠가 놓은 문을 열고 온 세상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리고?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사건을 교회의 탄생일로 기억합니다. 성령을 통해 형제애와 친교로 가득 찬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 활기를 불어넣듯, 성령께서도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각 지체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이끌듯이, 성령께서도 하느님 교회의 각 지체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 그리고 활동에 따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은 교회 각 구성원들을 일치시켜 한 몸을 형성하는 교회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일치로 살며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향주삼덕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은 늘 하늘을 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길 바란다면, 애덕을 보존하십시오,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일치를 희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성에 도달할 것입니다”(강론267,4).

◆변종찬 마태오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례 대레사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정미영 (미카엘라)	최 숙 (클라라)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우정석 사도요한	배재일 (미카엘)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서용숙 에스델	권순길 세실리아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제물봉헌자			P.V. 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5월 성모 성월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
●18일(주일) 낮미사(11시) 변경 : 오전10시
(오전 9시30분 미사가 없음)

◆예수성심대축일 미사 : 30일(금) 오전8시30분

◆성모의 밤 : 31일(토) 오후 8시, 성전

- ◆ 목요교리반 받아들이는 예식
 - 일시 : 5월29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중
 - 대부/모님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 ◆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6월3일(화)~6월8일(주일)
오후7시~9시30분(주일은 오후2시~6시)
 - 지도 : 방부익 신부님(사도 성요한 수도회)
 - 문의 : 최기남 야교보 성령기도회장 ☎ 310-569-3940

- ◆ 백삼위 마라톤 동호회 주말훈련
 - 시간 : 매주 토/일 오전 6시부터
 - 장소 : Pennsylvania Av. (PCH~256th St.)
 - 누구나 환영, 걷기만해도 됩니다.
 - ☎ 최현찬 안드레아 코치 938-0848, 김철민 요한 740-1502

*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 주일학교 첫영성체 대상자 학부모 모임
● 일시 : 5월17일(토) 오전9시~12시, 강당

◆ 주일학교/한국학교 임시휴강
본당체육대회와 Memorial Day 연휴로 5월18일과 25일
은 수업이 없습니다.

- ◆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 5월18일(주일), 운동장
 - 진행 : 대건회, 청년회
 - ▶ 낮미사 : 오전 10시 (임시 변경된 시간입니다.)
 - ▶ 11:00 : 입장식
 - ▶ 11:30 : 개회식
 - ▶ 12:00~12:30 : 피구 게임
 - ▶ 12:30~13:30 : 중식(소공동체별)
 - ▶ 13:30~13:45 : 청,백 합동 응원전
 - ▶ 13:40~17:00 : 릴레이경주, 축구, 오제미 던지기, 물풍선 나르기, 닭싸움, 줄다리기
 - ▶ 17:00: 폐회식
 - ▶ 17:15 ~18:00 : 주변정리
 - 청팀 : 토렌스 동, 북, P.V.
 - 백팀 : 토렌스 서, 남, 하버/칼슨
 - 복장 : 백삼위 모자, 본당 셔츠, 편의복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이 자리에 많은 신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 어머니 감사합니다!
마더스 데이를 맞아 M.E.에서 카네이션을 드립니다.
- ◆ 세계M.E.(WWME) 40주년 기념 컨벤션
 - 일정 : 6월27일(금)~29일(주일), 캘리포니아 온타리오
 - 문의 : 오영섭 스테파노 ☎310-922-1502
- ◆ 5월10일(토) 유아세례를 받은 윤지훈 그레고리오, 이민준 축하합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5월11일(주일) : M·E가 전신자를 대접합니다.(잔치국수)
 - 5월18일(주일) : 백삼위 한마당 체육대회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웅 권순봉 권오상 김기정 김 은 김관기	권순봉 권오상 김관기 김기정 김선재 김아가비도
	김선재 김아가비도 김영경 김영미 김정희	김영미 김정희 김준호 김철수 김형순 노천수
	김준호 김철수 김형순 노천수 문충환 민기남	문충환 민기남 박상준 박준구 방세훈 배기엽
	박상준 박준구 방세훈 방정복 배기엽 배진영	배진영 신경훈 오진자 영희가보라 우영주
	송재훈 신경훈 영희가보라 오 진 오진자	유선식 유영균 유정복 안재만 안태갑 이경용
	오일순 우영주 유선식 유영균 유인섭 유정복	이귀분 이근모 이숙화 이명자 이명렬 이영희
	안재만 안태갑 윤선희 이귀분 이근모 이경용	이정훈 이태옥 이호미 장숙환 장영우 장영진
	이명자 이명렬 이숙화 이연행 이영숙 이영희	전충호 최길주 최의수 최희태 채양석 홍석철
	이정훈 이태옥 이호미 장숙환 장영우 장영진	홍숙자 황인중
	전충호 최길주 최의수 최희태 채양석 홍석철	
	홍숙자 황인중 황학수	
	합계 : \$6,062	합계 : \$3,782
미사헌금 : \$2,706		

2차 헌금 : \$1,011

감사합니다 : 익명 (쌀)

이 주간의 축일 (5월 11일~5월 17일)

축하합니다

- 11일 : 프란치스코 증거자, 마메르토 주교, 마올로 원장, 간굴포 순교자
- 12일 : 네레오 순교자, 아킬레오 순교자, 리트루다 수절, 방그라시오 순교자, 디오니시오 순교자, 에피파니오 주교 순교자,
- 13일 : 세르바시오 주교, 이멜다 동정, 메레웬나 동정녀, 율리아나 동정녀, 클리체리아 동정 순교자
- 14일 : 마티아 사도, 카르타고 주교, 보니파시오 순교자, 파코미오 원장, 유스티나 순교자
- 15일 : 이시도르 순교자, 힐라리오 순교자, 덤프나 동정녀, 디오니시아 순교자
- 16일 : 우발도 주교, 요한 네포묵 사제 순교자, 호노라토 주교, 시몬 증거자
- 17일 : 파스칼 증거자, 실라오 주교, 바실라 순교자

남가주 소식

◆ 성체 산심 세미나 신청서

- 일시 : 5월 20일(화) ~ 26일(월) 오후 7시 30분 ~ 밤 10시까지
- 장소 : 성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 강사 : 채창락 요셉신부 (대구 대교구 산격천주교회 주임)
- 참가비 : \$30
- 문의 : 박성관 아오스딩 (☎ 310-894-1009)

◆ 남미 봉사단 모집

- 일시 : 7월 7일(월)~16일(수), 9박10일
- 장소 : 에콰도르 과야킬
- 지도 : 이영찬 사도요한 신부
- 연락 : 김 안나 (☎ 213-272-7404)

○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청소년들을 위한 꽃동네 피정 안내

○ 꽃동네 Summer Camp

- 일시 : 6월 26(목)~29(일), 3박 4일
- 대상 : 7학년~12학년
- 참가비 : \$120

○ 제4차 Summer 영성피정

- 일시 : 6월 26(목)~29(일), 3박 4일
- 대상 : 9학년~12학년
- 참가비 : \$120
- 지도 : 이유헌 신부

이번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양금 안나 518-3041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3	한길선 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 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5/16(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2	임진희 한나 720-7898	박소화 데레사 533-9312 5/7(수)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장수창 요한 486-1982 5/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박정희 마리아 800-3709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3	천광락 야고보 408-3175	천광락 야고보 408-3175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김희복 아네스 326-2283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이 주간의 축일 (5월 11일~5월 17일)

축하합니다

- 11일 : 프란치스코 증거자, 마메르토 주교, 마올로 원장, 간굴포 순교자
- 12일 : 네레오 순교자, 아킬레오 순교자, 릭트루다 수절, 방그라시오 순교자, 디오니시오 순교자, 에피파니오 주교 순교자
- 13일 : 세르바시오 주교, 이멜다 동정, 메레웬나 동정녀, 올리아나 동정녀, 클리체리아 동정 순교자
- 14일 : 마티아 사도, 카르타고 주교, 보니파시오 순교자, 파코미오 원장, 유스티나 순교자
- 15일 : 이시도르 순교자, 힐라리오 순교자, 담프나 동정녀, 디오니시아 순교자
- 16일 : 우발도 주교, 요한 네포묵 사제 순교자, 호노라토 주교, 시몬 증거자
- 17일 : 파스칼 증거자, 실라오 주교, 바실라 순교자

남가주 소식

◆ 성체 산심 세미나 신청서

- 일시 : 5월 20일(화) ~ 26일(월) 오후 7시 30분 ~ 밤 10시까지
- 장소 : 성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 강사 : 채창락 요셉신부 (대구 대교구 산격천주교회 주임)
- 참가비 : \$30
- 문의 : 박성관 아오스딩 (☎ 310-894-1009)

◆ 남미 봉사단 모집

- 일시 : 7월 7일(월)~16일(수), 9박10일
- 장소 : 에콰도르 과야킬
- 지도 : 이영찬 사도요한 신부
- 연락 : 김 안나 (☎ 213-272-7404)

◎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청소년들을 위한 꽃동네 피정 안내

◎ 꽃동네 Summer Camp

- 일시 : 6월 26(목)~29(일), 3박 4일
- 대상 : 7학년~12학년
- 참가비 : \$120

◎ 제4차 Summer 영성피정

- 일시 : 6월 26(목)~29(일), 3박 4일
- 대상 : 9학년~12학년
- 참가비 : \$120
- 지도 : 이유진 신부

이번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양금 안나 518-3011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3	한길선레 스펠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펠라스티카 782-1025 5/16(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2	임진희 한나 720-7898	박소화 테레사 533-9312 5/7(수)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장수창 요한 486-1982 5/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박정희 마리아 800-3709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3	천광락 야고보 408-3175	천광락 야고보 408-3175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김희복 아네스 326-2283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성령 강림 대축일은 교회의 생일이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로서 50일간의 부활시기가 그 막을 내린다. 우리는 부활시기 내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며, 그 핵심의 알맹이가 영원한 생명임을 깨달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대축제인 과월절을 부활절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낸다. 유대인들에게 과월절이 이집트 종살이에서의 물리적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부활절은 예수부활을 통하여 인류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이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야훼의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을 기념함으로써 율법을 통한 물리적 해방의 영적인 지속(持續)을 의미한다면, 성령 강림절은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시는 진리이시며 보호자이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로 마련된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선포하며, 실제로 살아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 위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다. 성령 강림은 부활의 완성이며 종말이다. 성령 강림은 부활절의 열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비록 승천하여 오셨던 곳으로 가셨으나, 약속대로(마태 28,20) 예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지속적 현존(現存)의 보증(保證)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부활시기의 마무리를 고하는 사건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의 시작을 의미하는 사건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탄생일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만의 부활하심과 발현하심, 40일간 지상에 체류하심과 승천하신 사건은 아무래도 스승 예수님의 산 증인들인 제자단(11제자와 여인 제자들)에 한정된 효과적인 사건이다. 이들은 단지 몇 명으로 조직된 소수의 집단이었고, 스승의 죽음에 직면한 이 집단의 태도는 차라리 조직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다. 그들은 승천하시는 스승으로부터 지상 최대의 복음선포와 세상으로의 파견을 명(命)받았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사명을 수행할 능력과 용기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한곳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렸던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의 은사로 가득 차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밖으로 뛰쳐나가 여러 가지 외국어를 구사하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사도 2,1-11) 성령을 듬뿍 받은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사도들이 모두 그 증인이다.”는 요지의 힘찬 설교를 했고, 이 설교에 믿음을 얻은 사람들 중에 그 날에만 삼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사도 2,14-42) 드디어 소수의 제자단에 한정되어 머물러 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성령 강림절은 세상을 향한 교회공동체의 탄생일이며, 동시에 제2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인 셈이다.

오늘 낮미사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과 “파견”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21절)고 말씀하신 후 제자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라.”(22절)고 하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23절)고 말씀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 안에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죄와 용서에 대한 “자유처분권”을 가진 듯 엿보인다. 물론 죄에 대하여 “단죄(斷罪)”와 “용서(容恕)”를 선포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 성령뿐이다.(16,8-11 참조)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활동을 제자들의 활동 안에서 보시는 것이다. 즉, 성령의 보호자로서의 활동과 진리로서의 활동을 제자들의 증거행동과 복음선포활동을 묶어 두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신다. 세상은 누구인가? 세상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배척하였으며(요한 1,10-11),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을 미워하였고(요한 17,14),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한 세상을 위해 목숨을 바친 죽음이었다. 이제 제자들은 그 세상으로 파견된다. 따라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 많은 세상”을 “용서하는 일”이다. 용서 없이는 복음선포도 있을 수 없고, 구원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성령 강림은 예수님을 죽인 세상의 죄를 용서하는 사건으로 자리 잡는다. 물론 사도들이 용서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돌아가신 예수님의 영(靈)이신 성령께서 사랑의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예수님을 닮아 가게 되는 것이다.

◆박상대 마르코 신부